

마테데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교회를 나의 자존심으로 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자존심조차
악으로 규정하며 스스로를
비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형통과 축복을
바라보지 않으며 오로지
불쌍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만
모이기를 힘씁니다.

겪어지는 계절의 길목에서

신윤식

삶의 모습 하나를 보지 못하고
지나는 길조차 알지 못하네.
이 길이라 생각하며 걸어온 길에
미련 남아 영킨 마음들
옹이처럼 박혀 있어도
헤아리지 못한 미련함에
그저 흐르는 세월이어라

오고가는 계절의 섭리를 보라
어제라는 과거를 지나
지금이란 현실 앞에 서 있고
삶을 덧칠하는 손길은 분주하건만
삶에 물음표 찍고 바라보지는 못하니
낙엽 되어 떨어지는 것뿐이라

한 계절 한 계절 겪어지는 길목에서
미련으로 남는 것이 나를 붙들어도
가야 하는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나를 영접해 줄 유일한 그 한분이라.

세월이어! 바람이어!
그대 떠날 때마다
그대 보낼 때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아
거기에만 온 마음을 두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3.10.13

발행호수 제21권 41호

지 난 주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재물에 대한 충성이 서로 공존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이 공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와 재물의 요구가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적인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 반면 재물은 자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재물을 필요로 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물이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 확대를 이루어줄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을 과연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재물을 신이 베풀어 주는 복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이 재물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종교에서도 각자의 신이 베풀어 주는 복에 재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현대의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거의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시되 재물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복을 받으면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거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증표로 헌금을 많이 하고 소위 좋은 일에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며 대신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남의 일이 되고 자신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자부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말합

주일오전설교
눅 16:14-18

돈을
좋아하는 자

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에 대해 무덤덤해하고 돈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돈이 없이는 생존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교훈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음으로 반응합니다. 전혀 찔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돈을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꼬집는 예수님의 말씀이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으로 반응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불행과 비극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 죄를 범한 것이 있기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행복과 성공, 그리고 재물의 부요는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기에 베푸신 증표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표로 여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찔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거리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지만, 바리새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행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율법의 행위, 즉 그들의 의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율법을 실천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설사 알았다고 해도 자기 행함의 의에

막혀서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위가 의로우니 마음 또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으로 가득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율법을 실천하게 되고 착한 행위가 나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롬 7:18,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율법을 실천하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로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다른 점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 다른 기준은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탁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은 높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미워하신다는 것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고상하고 점잖고 인격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합니다. 늘 나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며 손해 보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알뜰한 마음의 소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도 속에는 싫어하는 마음을 감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내세우며 의를 실천한다고 해도 이러한 내면

의 실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한 바울의 결론은 **“악을 행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선과 의를 행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향해 **“악을 행한다”** 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선을 원할 수는 있으나 행할 능력은 없음을 알았습니다. 선을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모든 일을 그 옳고 그름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인 인간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기 이권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고상하고 종교적인 선을 실천하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8절에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는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혼도 재혼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규례에는 아내에게 수치가 있어 버리려고 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내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규례를 악용하여 아내에게 싫증이 나면 이혼증서를 써서 주고 내 보내고 또 다른 아내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여전히 악에 의해 행해지는 것들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 어떤 고상한 신앙적 행위와 실천을 보인다고 해도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죄는 존재론적 세력이고 그 존재를 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능력

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신앙적 행위와 실천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이기심과 시기, 탐욕과 판단 등 악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과 같은 착각으로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내적인 면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천이 있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을 놓고 본다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의롭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세상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돈으로부터 자유 할까요? 세상은 정치와 권력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세상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신을 옳다고 여기게 함으로 높임 받고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의 실상을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악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품고 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존귀한 것으로 높이는 것이 교회의 다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세상과 동일하게 권력과 돈과 정치, 그리고 실천과 고상한 도덕으로 내 교회의 다름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고 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옛 시대를 의미합니다. 옛 시대는 요한의 때로 끝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시대는 율법에서 해방되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사람이 자기 행위의 의를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7절)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구절이 마 5:18절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누가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한 획을 율법을 문자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천함으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바리새인의 행함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는 뜻이 됩니다. 즉 인간은 행함의 의를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자기 죄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기 의에 갇혀서 내가 누구인줄 모른 채 자기 기준으로 자신에게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길로만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미워하는 것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속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바도 바울처럼 내면의 악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실천이 있다고 해서 자신을 옳은 자로 여기지 않으며 다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의 신앙과 근본적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이시다는 뜻이 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다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그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증거는 메시아의 나라가 실제로 세상에 건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

주일오후설교

시 134:1-3

여호와를
송축하라

(138장 9.15일 설교)

들의 세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나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예수님에게서는 로마를 축출할 영웅적인 힘과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시각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규정하신 여러 가지의 의식이나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셨습니다. 가령 제사법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희생당한 제물로 오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유월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나 십일조 회년 모든 규례들이 메시지를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제사를 행하고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그 눈이 가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해도 결국 그것은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송축은 메시지를 보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송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중심이 성전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사는 성전에서만 가능했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남다른 감회가 있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흔히 자기감정에 몰려서 자신을 발산하는 방식으로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이 말하는 송축은 그런 노래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1절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와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제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나름대로 짐작은 해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여호와와 성전을 찾은 사람이라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은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눈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칠까요? 크나큰 여호와와 복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밤에도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 안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와의 성전에 거하는 것 자체를 복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다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고 합니다. 이처럼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라는 것은 송축의 근거와 이유가 성소의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소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니라 자기 육신에 관심을 두고 나오게 되면 송축은 육신의 일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보다 자기 육신의 일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송축을 명분으로 자기 잘됨을 높이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라는 뜻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성소의 참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인자, 자비, 도우심과 지키심 등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육신을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닌 육신의 일을 근거로 제멋대로 판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신앙이 아닌 종교로 흐르게 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문제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는 다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육신의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육신이 아닌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어 놓으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고통과 어려움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된다면 신자는 주어진 조건을 초월하여 이미 하나님의 복에 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송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소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성소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이 일하고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에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칭찬할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간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오직 희생 제물의 피가 흐를 뿐이고 그 피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송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해 증거된 인자와 자비하심만이 송축의 이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주의 백성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성소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는 신자가 성소이며 그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예배와 설교는 새로움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즉 기존의 예배와 설교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위한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형식의 변화일 뿐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의 형식에 변화를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또 다시 그 예배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익숙한 내용과 구

절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과 깊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신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습관처럼 대하고 생각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의미에 마음을 집중한다면 말씀이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말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아람 곧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택과 의지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린 그것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적은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를 건너 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일 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됨을 증거하는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적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 의해 발생 가능한 것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사람의 손으로 가능한 것들이 기적이나 복이라는 명목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자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부자 되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또한 현재의 자기 힘으로는 부자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주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간주합니다.

본문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애굽의 장차리를 치시고 여러 표적과 징조를 보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애굽에게 왜 그 같은

주일오후설교

시 135:1-7

특별한 소유

(139강 9.22일 설교)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기적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35편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13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신자의 찬양이 무엇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 나를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적을 근거로 한다면 신자는 자신이 주의 소유가 된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기 위한 명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여호와와 일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호와와 이름에 포함된 일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편히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렇다면 왜 굳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할렐루야’ 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들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자기 백성을 위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이기 때문에 4절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위해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이 압박강에서 천사와 날이 새도록 씨름 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 허벅지 관절을 찢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려고 할 때 천사가 가려고 하자 야곱

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고 야곱이라고 하자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축복 받을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받아내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축복은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신 것은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찬송하는 도구로 부르신 것이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찬양의 도구로 삼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되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선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세우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셔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할렐루야’ 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으로 이미 기적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만큼 신자 됨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뜻이며 신자 됨만으로도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신자의 복됨을 세상의 소유로 인해 잃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께 항상 새로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이 기쁨이 됨을 체험할 것이고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으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신자가 할 일입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40장
교 독 : 1(시1편)
기 도 : 조규현 장로
찬 송 : 338장
성 경 : 눅 16:14-18
말 씬 : 돈을 좋아하는 자(80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92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3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69장
기 도 : 김정덕 집사
찬 송 : 419장
성 경 : 시 138:1-8
말 씬 : 나를 위한 보상(14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46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95강)

■ 교회소식 ■

1.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행복샘교회당에서 구역시찰회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송재관 집사

이단 ②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을 믿되 영이 다른 사람의 육신에 재림하는 것을 재림부활"이라고 주장하고 "엘리아는 요한의 몸에 재림부활 하였기에 몸은 요한의 몸이지만 실제로는 엘리아로 세례요한은 요한과 엘리아 두 사람이 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육신의 부활이란 행실의 부활이라고 말하며 예수의 부활은 육이 아닌 영의 부활이라고 하며 육의 부활을 부정한다. 또 "불교의 윤회설은 재림부활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부활사상으로 오히려 무속적인 신내림(신접)의 상태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재림주는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가운데서 시대적 중심인물을 택하여 그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여 협조함으로 재림 예수의 사명을 하게 하신다고 한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예배드림으로 깨끗한 구름이 된 기독교인 중에서 나타난다는 뜻이라고 하고, 재림주는 육적 구원을 위해 온다고 주장 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결혼을 하지 않고 육신으로 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善)의 자식을 번식하지 못했기에 육적 구원을 하시려고 오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재림주 예수의 영이 정명석에게 강림했다고 함으로써 결국 정명석 자신을 재림주로 지칭을 하는 것이다. 엘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하였다가 세례 요한에게 영이 강림하여 재림한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의 영이 정명석에게 영으로 강림하여 재림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기독교복음선교회는 자신들이 정명석을 재림주로 여긴다는 것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도 한다. 사실 그들의 교리인 30개론에는 정명석이 재림주라는 내용이 없다. 하지만 그들은 새 교인이 30개론을 충분히 익히고 교단에 완전히 포섭되기 전까지는 그 같은 얘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그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 교인이 30개론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JMS 신도들과 친분이 두터워지면 서서히 30개론의 주창자인 정명석을 선전하기 시작하여 결국 재림 예수로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그는 구원론에 있어서도 기독교는 영과 육의 성관계를 통한 타락의 경로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은 뒤에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고 하고, 그 시대의 중심인물(정명석)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정명석의 30개론이라는 것을 보면 성경이 비유와 은유적 표현으로 가득한 전제하에 출발한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짓게 되었다는 부분도 하와가 사탄(뱀)과 성관계를 한 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비유해 적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선악과를 먹은 후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하체를 가린 것을 말하고, 또한 하나님이 하와에게 임신의 고통을 주신 것을 말하기도 한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대학생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존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성경의 숨어 있는 비밀을 해독하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JMS에서 30개론을 공부한 사람 중에는 기존의 기독교에서 풀어주지 못하던 과학과 종교 간의 괴리감을 해결해주는 듯이 보였다고 술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물론 믿음이 무조건 믿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등장한 사건이나 내용들이 과학과 일치되어야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구원의 근거를 과학에 두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